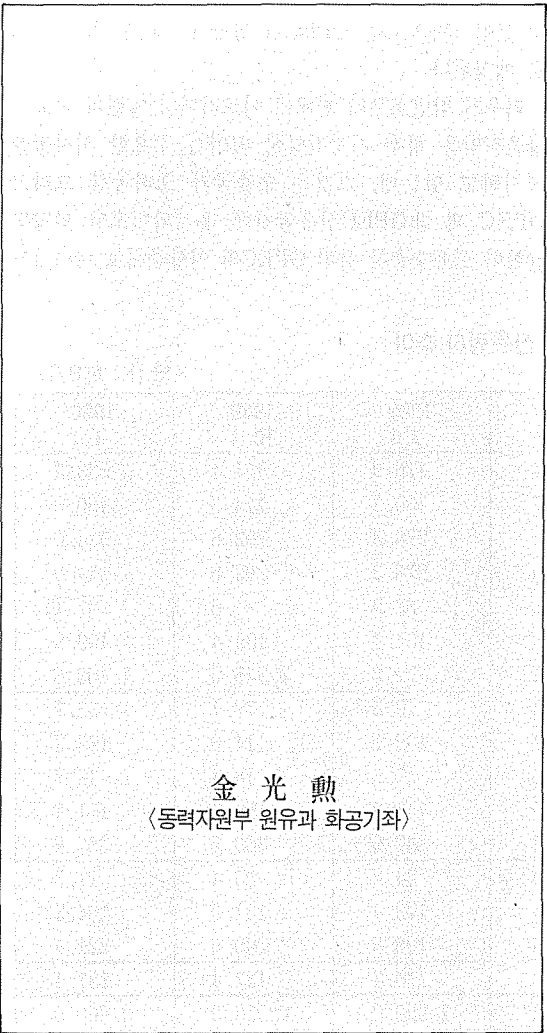


最 近의 국제석유시장동향 및 전망에 비추어 국내원유수급동향을 살펴본 다음 현재 원유의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중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고,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原油도입정책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내원유수급동향과 원유도입정책방향



金光勳
(동력자원부 원유과 화공기좌)

I. 국제석유시장동향 및 전망

'80년대 전반기에 石油수요가 심한 정세현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86년 이후 세계석유수요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및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80년대의 석유시장은 과잉공급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시장 지배력약화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유가하락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86년과 '88년의 유가 하락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결속력이완에 따른 과잉공급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87년의 유가회복은 OPEC의 내부결속에 의한 것이었고, '89년은 OPEC의 수요급증이 유가회복의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表-1 참조〉

〈表 - 1〉 세계원유수급현황

(단위 : 百萬배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4	2/4	3/4
• 需 要	46.8	48.2	49.3	50.9	51.8	53.8	50.9	52.0
-OECD	34.4	35.4	36.0	37.0	37.3	38.8	36.4	37.0
-기 타	12.4	12.8	13.3	13.9	14.5	15.0	14.5	15.0
• 供 給	46.1	48.3	48.6	50.8	52.3			
-OPEC	17.5	19.8	19.6	21.6	23.5			
-非OPEC	28.6	28.5	29.0	29.2	28.8	29.5	29.4	29.5
• 재고변동	-0.7	0.1	-0.7	-0.1				

〈資料〉 IEA, ('89. 12)

지난해 11. 25~28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86차 OPEC총회에서는 OPEC 바스켓原油의 기준가격 (Reference Price)이 18\$/B임을 재확인하였고, 또한 쿠웨이트가 실제생산량보다 50만B/D 낮은 150만B/D의 쿼타를 수락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구쿼타를 유지, 아랍에미리트에게는 명목쿼타부여(실제는 자유생산),기타 10개국은 종전배정쿼타 비율대로 배분하여 회원국별 쿼타를 정함으로써 생산상한은 과거 2,050만B/D에서 2,200만B/D로 상향조정(表-2 참조)하는데 합의한 바 있어 형식면에서는 만장일치의 형태를 취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자유생산국인 쿠웨이트를 쿼타체제로 복귀시킴과 동시에 아랍에미리트를 실질적으로 쿼타에서 제외하고 자유생산을 인정하여 사실상 쿼타체제의 분열를 가져와 과잉공급현상이 불가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89년의 브렌트유전사고, 발데즈港 漏油사고, 파나마사태 등 일련의 각종 우발사고에 의한 非 OPEC의 공급감소, 東獨·루마니아등 東歐圈의 격변과 '89년 11월말부터 계속된 유럽, 北美지역의 환파지속으로 인한 수요급증등 OPEC외부환경에 의한 對 OPEC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OPEC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현재의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對 OPEC의 수요가 2,400만B/D 수준에 달하게 되면 매장량 및 생산능력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페르시아만산유국을 제외한 기타산유국은 생산능력의 한계에 부딪쳐 더 많은 쿼타를 배정해도 더 이상 증산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의 전망하에서 '90년도에는 OPEC의 통제력이 다시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OPEC가 자신감을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랄 수 있다.

따라서 對 OPEC 원유수요의 증가에 따라 쿼타배정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 OPEC회원국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상호협조의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금년도에는 OPEC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작년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석유시장움직임은 향후 시장전망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출국과 소비국간 그리고 OPEC 과 非OPEC산유국간에 유지되어오던 안정된 균형이 석유수출국 특히 OPEC의 역할증대로 나타나고

〈表 - 2〉 OPEC 산유쿼타 추이

(단위 : 萬B/D)

	생산능력	1988	1989 1. 1	1989 7. 1	1989 10. 1	1990 1. 1
사우디아라비아	1,280	434.3	452.4	476.9	501.4	538.0
쿠웨이트	320	99.6	103.7	109.3	114.9	150.0
이 란	700	236.9	264.0	278.3	292.6	314.0
이 라 크	400	-	264.0	278.3	292.6	314.0
카 타 르	65	29.9	31.2	32.9	34.6	37.1
아랍에미리트	255	94.8	98.8	104.1	109.4	109.5
中 東 計	3,020	895.5	1,214.1	1,279.8	1,345.5	1,462.6
알 제 리	120	66.7	69.5	73.3	77.1	82.7
리 비 아	250	99.6	103.7	109.3	114.9	123.3
가 봉	30	15.9	16.6	17.5	18.4	19.7
나 이 지 리 아	250	130.1	135.5	142.8	150.1	161.1
아 프 리 카 計	650	312.3	325.3	342.9	360.5	386.8
에 라 도 르	25	22.1	23.0	24.2	25.4	27.3
베 네 수 엘 라	260	157.1	163.6	172.4	181.2	194.5
南 美 計	285	179.2	186.6	196.6	206.6	221.8
인 도 네 시 아	180	119.0	124.0	130.7	137.4	137.4
計	4,135	1,506.0	1,850.0	1,950.0	2,050.0	2,200.0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OPEC의 결속력 및 시장지배력의 점진적 확대, 세계석유수요의 지속적증가, 非OPEC산유국의 생산능력한계, 東歐圈의 개방화의 고조등에 근거를 두고 일부 석유전문가들은 '90년대초반에 또다른 석유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여 '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油價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80년대후반의 低油價시대가 시작되면서 수요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非OPEC공급증대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OPEC 잉여생산능력 역시 급증하는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90년대의 油價상승분위기는 일단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의 油價상승전망은 필연적으로 OPEC의 생산증대노력을 초래하여 이것이 油價상승속도를 완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생산능력증대는 재정이 어려운 대다수 OPEC 國들에게 많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산유국의 하류부문진출에 따른 일관조업체제의 구축, 산유국과 메이저사이에 공동이익추구를 위한 공동보조의 강화 등, 결과적으로는 국제석유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가 되어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협조체제의 필요성이 재고됨에 따라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原油수급 및 가격전망의 불확실성속에서 금년도 유가전망은 '89년보다 다소 상승한 16~19\$/B, '95년에는 19~25\$/B, 2000년에는 24~40\$/B <表-3 참조>이 될 것으로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점은 '90년대의 油價폭등 또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제3의 석유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90년대는 OPEC의 생산능력증대추세와 수요증대추세가 균형점을 이루어 완만한 油價상승이 지속될 것인지로 집약되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石油수급이 안정된 때에 새로운 변화에 기민하고 명석하게 대처해 나갈 능력을 배양하여 능동적인 주체로서 슬기롭게 행동할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진다.

II. 石油의 안정확보를 위한 주요 현행시책

1. 現物市場구입 原油계약에 대한 신고제 실시

현재 原油도입제도를 보면 석유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原油구입계약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이하의 현물원유구입계약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승인 및 신고제도의 설정배경은 도입지역의 편중방지로 도입선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안정공급을 도모하고 적정수준의 장기계약 對 현물원유도입물량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低價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석유사업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시의 국제시황을 감안하여 '84년 이전에는 전량 승인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 이후 '84년 및 '85년에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승인제 및 신고제를 병행 운영하여, 원유의 장기공급계약은 全量 승인제로, 현물원유구입계약에 대하여는 내수소요원유의 일정량('84년 : 20%, '85년 : 30%)으로서 공식판매가격미만은 신고제로 운영함과 동시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승인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86년 이후에는 연초부터 과잉공급에 의한 OPEC공식판매가격의 붕괴<表-4 참조> 및 가격하락에 따라 현물원유의 低價도입활용을 위해 신고대상물량을 고시하지 않고 전량 승인제로 계속 운영하여 '89년 5월 1일부터는 석유수출입제도의 단계적 자율화방안의

<表-3> 주요국제기관의 증장기 유가전망

(단위 : \$/B)

	1990	1995	2000
I E A	18	23	30
美 에 너 지 部	14~20	18~27	25~40
B P	17	20~25	30~35
D R I	16~18	18	24
W E F A	15~18	19~22	-
OPEC 사무국	18	18	18
P E L	14~18	17	22
J I E E	15~18	20~23	24~26

〈表 - 4〉 국제원유가격추이

(단위 : \$/B)

		OPEC평균		아라비아라이트		두 바 이		오 만		브 렌 트		W T I	
		공식가	현물가	공식가	현물가	공식가	현물가	공식가	현물가	공식가	현물가	공식가	현물가
1981	6 월말	34.77	31.43	32.00	31.75	35.93	30.75	38.50	-	35.00	-	35.00	-
	12월말	33.87	33.12	34.00	34.15	33.86	33.75	34.00	-	36.60	-	"	-
1982	6 월말	33.16	32.01	"	32.55	"	31.00	34.30	-	33.50	-	32.00	-
	12월말	33.17	30.10	"	30.05	"	29.50	34.00	-	"	-	"	-
1983	6 월말	28.44	28.11	29.00	28.85	28.86	28.45	29.00	-	30.00	-	30.00	-
	12월말	28.48	27.85	"	28.30	"	27.35	"	-	"	-	"	-
1984	6 월말	28.48	27.25	"	28.10	"	27.85	28.55	27.60	"	28.25	"	-
	12월말	27.88	26.86	"	27.65	"	26.55	"	27.20	28.65	26.90	28.00	-
1985	6 월말	27.43	25.85	28.00	27.00	27.86	25.50	26.15	26.30	26.65	26.75	27.20	-
	12월말	27.46	26.32	"	27.95	"	26.10	26.87	26.70	-	26.50	27.80	-
1986	6 월말	22.33	10.51	"	-	-	10.70	10.70	10.80	-	10.50	-	14.00
	12월말	21.92	15.14	"	-	-	14.10	14.10	14.35	-	14.00	-	15.50
1987	6 월말	17.87	17.51	17.52	17.49	17.42	17.15	17.52	17.50	-	18.85	-	20.05
	12월말	17.87	15.79	"	15.86	"	15.39	16.00	15.85	-	17.45	-	17.23
1988	6 월말	17.60	14.25	"	13.97	"	13.70	14.09	14.05	-	15.57	-	16.55
	12월말	17.47	13.33	"	12.81	"	12.59	12.82	12.99	-	15.27	-	16.55
1989	6 월말	17.73	16.28	"	15.96	"	15.40	15.93	15.80	-	17.55	-	20.04
	12월말	17.48	18.13	"	17.58	"	17.10	17.70	17.72	-	19.93	-	21.03

일환으로 현물원유구입계약에 대하여는 다시 신고제로 전환하여 당해년도 내수소요원유의 40% 범위내에서 현물원유구입신고대상물량의 산출기준을 설정·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89-23호, 89. 4. 25)함으로써 정유사 별로 현물시장을 활용한 低價原油도입 및 각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를 적기에 선택·구입토록 그 선택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장기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한편, 내수소요원유의 40%를 초과하는 신고대상물량 이외의 현물시장원유구입 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방침을 정하여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여 오고 있는중인데, 신고대상물량의 산출기준과 별도승인방침내용은 다음과 같다.

• 精油社別 分期別 신고대상물량 산출기준

$$\text{formula} : \text{O} \times \frac{\Delta}{\square} \times 40\% \times 1/4$$

당해년도 석유수급계획상 내수소요원유 총량 × 정유사 별(전전년도 + 전년도) 내수소요원유도입량 / (전전년도 + 전년도) 내수소요원유도입총량 × 40% × 1/4.

다만, 당해분기내에 도입치 못한 나머지 신고대상물량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 신고대상물량 이외의 현물시장원유 구입방침

① 장기계약체결분중 산유국의 불가항력에 의한 공급 감축 또는 계약상대방이 공급을 감축하는 경우

② 기존 장기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계약조건의 협의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에 한함)

③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중인 경우(고시시행일로부터 3개월에 한함. 단, 정제·분해·탈황시설등을 설치하는 정유사는 그 설비가동일로부터 최적원유 선정시험, 분석, 평가 및 장기계약체결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기간 부여)

④ 비축용원유를 구입하는 경우

⑤ 시험용원유로서 1척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하는 경우

⑥ 장기계약물량중 공급자의 양해하에 장기계약물량을 현물로 대체하여 도입하는 경우

⑦ 연간 마지막 항차 도입량이 사별 전체 할균량을 초과할 경우

⑧ 국제석유시황변화에 대처하여 국민경제운영상 또는 국내석유수급상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책원유의 도입

제2차 석유위기이후 '80년대 초반부터 소비국의 대체 에너지개발, 소비절약추진 등에 의한 수요감퇴와 OPEC 산유국간의 석유판매시장 확보경쟁에 따른 세계석유시장의 공급과잉으로 반전하게 되자 산유국인 이라크, 멕시코, 리비아등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외교, 건설, 무역 등과 관련하여 자국원유의 판로확충을 위해 상당량의 원유를 정책적으로 도입해 줄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사국간 우호협력관계유지차원에서 불가피하게 '83년 3월 24일 정유5사의 정책원유도입 및 공동분배원칙에 대한 합의이후 '88년까지 이들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계속 도입사용(표-5 참조)하여 왔으나, 수년간 도입사용해온 결과 국내정유사는 원유도입에 있어서의 민간자율성원칙과 타원유 대비 동원유의 수송비 가격, 품질상의 열위성 및 공동배분사용절차상의 복잡성을 이유로 정책원유로서의 도입종료를 희망하고

상업베이스로의 원유도입전환을 주장하면서 '89년에 들어서는 정책원유의 도입계약을 미루고 당사국태도의 관망과 함께 선적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89년 하반기에 접어들자 관련당사국 특히, 이라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산원유의 계속도입과 더불어 이라크측에 이라크원유도입 간사회사인 京仁에너지의 원유구매교섭단을 파견해 줄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외무부, 건설부등 관련부처로부터도 외교관계, 건설진출, 상품교역등 경제협력관계 확대전망등을 고려하여 이라크原油도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여 줄것을 요청해 왔다.

이와같은 산유국 및 관련부처로부터의 정책원유도입압력과 실수자인 정유5사의 정책원유도입폐지주장의 어려움속에서 정부는 원유공급확박시를 대비하여 대상산유국들과 우호협력관계의 유지 및 원유도입선 다변화에 의한 안정공급선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정책원유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89년 8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차례 걸쳐 정유5사 부사장, 원유수급담당이사, 원유부장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라크, 멕시코, 리비아등 3개국 원유를 각 간사회사가 상업베이스에 의해 도입키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각 산유국별 간사회사는 각각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1월10일 정유사

〈表 - 5〉 정책원유도입추이

(단위 : 계약 千B/D, 실도입 千배럴)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總原油도입 (千배럴)		192,888	199,681	198,313	230,063	216,163	261,079	
이 라 크	계 약	10	-	-	20	15	20	-
	實 導 入	3,459	-	-	3,542	3,622	10,266	-
멕 시 코	계 약	15	10	7	10	10	10	20
	實 導 入	3,987	3,772	1,333	3,646	2,991	4,954	-
리 비 아	계 약	20	20	20	20	30	30	-
	實 導 入	9,033	8,654	4,942	7,685	5,116	-	-
인도네시아	계 약	10	-	-	-	-	-	-
	實 導 入	3,539	-	-	-	-	-	-
말레이시아	계 약	5	-	-	-	-	-	-
	實 導 入	2,745	-	-	-	-	-	-
計	계 약	60	30	27	50	55	60	20
	實 導 入 (千배럴)	22,763	12,426	6,275	14,873	11,729	15,220	-
	(千B/D)	62.4	34.0	17.2	40.7	32.1	41.7	-
	도입비중 (%)	11.8	6.2	3.2	6.5	5.4	5.8	-

〈表 - 6〉 정책원유도입추진계획

		이 라 크	멕 시 코	리 비 아
간사회사		京仁에너지	湖南精油	油公
도 입 선		SOMO	PEMEX	BIMC
韓國측협의 추진내용	유종	Basrah-Light	Isthmus or Maya	Brega
	품질	고유황원유	고유황, 중질원유이며 특히 Maya는 금속분이 많아 정제·사용상 지장초래.	저유황, 경질원유이긴 하나 유동점이 높아 겨울철 사용에 지장초래.
	물량	20천B/D Max.	20천B/D Max.로 타결노력	기계약량 30천B/D에서 10-15천B/D로 타결노력
	가격	對日本 장기계약가격과 동일조건 * 1990. 1/4 : (Oman + Dubai) / 2 + 0.03 \$ / B	PEMEX의 월별통지가격 또는 최대 유리한 조건	최대 유리한 가격조건
협상시기		각 정유사의 동의를 얻어 1990. 1월중 SOMO에 계약체결 의사통보 예정	1990. 1월중 PEMEX에서 협의차 내한 예정이었으나 연기(Isthmus의 대한 공급 물량 부족)로 관망중	1990. 2월중 런던 IPC에 참석, BIMC와 협의예정

부사장단회의에서 각 간사회사별 '90년도 정책원유도입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인·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여기에서 도입된 원유는 각 정유회사별 내수판매 마켓트 세어대로 배분하되 그 적용시점은 매항차별 원유전적월의 바로 전월을 제외한 그앞 3개월의 평균 세어로 하기로 하고 각 정유사의 마켓트세어에 의해 각사에 할당된 물량은 자기회사책임하에 소화·처리토록 합의했다.

위에서와 같이 진통끝에 어렵게 도입키로 확정된 향후 각 간사회사별 정책원유도입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表-6 참조〉

3. 공산권과의 교역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中國, 소련에 비해 에너지자원이 극히 빈약하여 石油 유연탄등 특히, 석유는 그 수요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실정므로 中國, 소련등 대공산권과의 에너지교역은 선진국과의 무역마찰격화로 시장다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새로운 시장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도입선 다변화를 기할 수 있고, 中國이나 소련의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송기간단축, 수송비절감등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88년 6월부터 민간정유사가 상업베이스에 의해 처음으로 中國産原油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해 총 3,444천배럴(平均導入單價 : 11.42 \$ / B)을 도입하였고, '89년에는 전체원유도입량의 2.7%인 8,100천배럴(평균도입단가 : 14.09 \$ / B)을 도입하였다.

中國은 日本, 브라질, 필리핀, 北韓, 루마니아, 美國, 싱가포르등에 '87년 545천B/D의 원유를 수출하였고, '88년의 수출추정치는 이보다 감소한 530천B/D, '90년의 수출전망은 560천B/D로 잡고 있으나, 2000년에는 자국내수요의 증가를 예상하여 크게 감소한 250천B/D에 불과한 물량만을 수출로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中國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어 自國內 석유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유의 수출여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中國으로부터 계속 원유를 도입할 것이며, 더욱이 우리나라 정유사의 중질유분해시설이 완공되면 보다 中國産원유의 도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련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東歐圈에 대한 石油수출분까지 고려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石油수출국이다. '87년의 경우 소련의 산유량은 12,740천B/D에 달했고, 이중 3,700천B/D를 수출하였으며 '88년에는 3,700천B/D를 수출, '90년에는 3,810천B/D를 수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련은 원유주산지인 서부시베리아 유전개발 및 시설유지보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88년부터는 極東의 東部시베리아에 대한 개발과 함께 앞으로 極東지역에서는 사할린대륙붕개발 오호츠크해 유전개발 등이 진척되면서 산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출여력은 다소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의 수출증가 외에 원유수출물량증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의 石油·天然가스의 수출은 대륙횡단 파이프라인에 의해 東歐 및 西歐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소련이 高度의 진보된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국내 에너지자원개발에 自由세계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의 상호협력의 潛在力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련의 원유주산지인 서부시베리아 및 볼가-우랄지역(소련원유의 85% 생산)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지역보다도 수송거리가 멀 뿐 아니라 極東지역 역시 생산량이 적어 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소련원유의 도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만 향후 동지역에서의 원유도입이 필요한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의 기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겠다.

4. 原油導入先 다변화 지원제도

과거 국내정유사들은 中東 및 東南亞를 제외한 中南美 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中東지역등과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비, 금융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원유도입시 비용이 추가비용만큼 더 비싸지게 되어 이지역에서의 도입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안정공급선확보에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82년 3월부터 미주 및 아프리카지역등 다변화 대상지역에서 산유국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도입할 경우 원거리수송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石油安定基金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다변화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는 다변화대상지역에서 장기구입계약에

의해 정제업자에게 석유사업기금에서 수입장려금의 지급을 비롯하여 中東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보다 추가 발생하는 운송비, 금융비 등을 지원하여 정유사로 하여금 도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하여 오다가 '86년에 들어 국제석유수급상황이 일부 OPEC산유국의 쿼타 초과생산으로 공급과잉상태가 되고 제정이 팽박한 일부 산유국의 시장확보경쟁으로 카르텔에 의한 공식가격제도가 붕괴됨은 물론 OPEC국들이 할당판매를 개시하는등 국제석유시장이 구매자시장시대로 전환되자 지역간의 심한 원유가격차이가 해소됨과 동시에 물량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83년 2월 21일부터 다변화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에 대해 0.7\$/B씩 지급하던 장려금지원제도는 '86년 4월 28일을 기해 폐지하였으며, '87년 5월 13일에는 다변화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추가금융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추가운송비에 대하여는 석유 부존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대산유국으로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토록 유도하였다.

즉, 지원대상은 종전과 같이 美洲 및 아프리카지역의 산유국정부나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하는 원유로 한정하고 지원규모는 실적기준으로 中東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보다 추가발생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되 다변화대상국을 구분하여 原油매장량이 100億배럴 이상인 大産油國에서의 도입분은 추가운송비를 100%전액을 지원하고, 매장량 100억배럴미만인 小産油國의 경우에는 70%만을 지원토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에서의 원유도입가격이 불리하고 장기간의 수송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表 - 7〉 原油導入先 다변화 지원추이

(단위: 억원, 지급기준)

	獎勵金	追加運送費	追加金融費	計
1982	-	22	-	22
1983	69	95	40	204
1984	121	28	35	184
1985	158	87	27	272
1986	87	143	22	252
1987	-	40	3	43
1988	-	29	-	29
1989	-	-	5	5

이란·이라크전쟁의 종전으로 中東지역에서의 수송위험이 해소되어 정유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2년부터 현재까지 原油도입선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한 석유사업기금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表-7 참조〉

Ⅲ. 국내 原油수급 동향

1. '89원유도입현황 및 분석

제2차 석유위기 이후 '82년까지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원유도입물량이 감소하였으나, '83년 이후에는 점차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石油製品의 내수소비증가, 제품수출증가 및 비축원유구입 등으로 원유도입량이 계속 증가하여 '88년도에는 261,079천배럴(713천B/D). '89년도에는 296,410천배럴(812천B/D)이 도입되어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전체원유도입복합단가는 '81년부터 '86년까지 계속 하락(29.70→14.17\$/B)하다가 '88년도에는 13.89\$/B, '89년도에는 15.81\$/B을 시현하여 전년보다 1.92\$/B이나 비싸게 도입되었다.

原油도입지역은 '70년대까지는 中東지역의 일부 산유국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선다변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中東의존도가 점차 감소되어 '78년도 당시 100%에서 '88년도에는 64.2%수준까지 크게 감축되었다가 '89년도에는 '88년8월 이 이전의 종전에 따른 수송안정성이 확보되어 다시 72.7%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장기계약에 의한 원유도입선을 보면 '79년도에는 中東지역의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에 불과하였으나, '81년도에는 9개국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86년 이후에는 12개국으로 더욱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현물원유가 도입되는 산유국까지 망라할 경우 20여개국으로 다변화되어 OPEC의존도가 감축된 반면, 동남아를 비롯하여 美洲 아프리카지역의 다수 산유국들은 확대되었다.

특히, '88년도에는 해외유전개발의 추진결과 北예멘으로부터 처음으로 自主開發原油 8,878천배럴(총원유도입량의 3.4%)이 도입되었고, '89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물량이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교역의 추진에 따라 '88년 7월부터 中國原油의 도입개시 이래 '89년말까지

11,544천배럴이 도입되어 '89년의 경우, 전체도입원유에 대한 도입비중은 2.7%나 되었다.

'89년도 원유도입실적을 세부항목별로 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原油도입량 및 도입단가 측면

총원유도입량은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한 296,410천배럴이고 총복합단가는 '89하반기에 들어 비교적 국제시황의 강세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1.92\$/B 상승한 15.81\$/B이었으며, 총도입금액은 4,935百萬달러로 전년보다 1,085百萬달러나 증가되었다.〈表-8 참조〉

〈表-8〉 원유도입실적

	1988	1989	증감(%)
물량(천배럴)	261,079	296,410	35,331(13.5)
단가(FOB, \$/B)	13.89	15.81	1.92(12.7)
금액(CIF, 百萬달러)	3,850	4,935	1,085(28.2)

(2) 內需(장기 및 현물)원유도입측면

장기계약체결비중 및 장기계약에 의한 원유실도입량은 증가했으나, 장기계약원유실도입비중의 감소는 '89년도 상반기중 일부 정유사의 장기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현물원유의 도입치중 및 장기계약물량의 선적을 보류하고 현물시장의 활용폭을 넓힘으로써 전년동기보다 현물원유도입비중이 증가하였으며, 〈表-9 참조〉

〈表-9〉 장기계약 및 現物도입원유 구성비

	1988	1989	증 감
장기계약체결비중(%)	61.5	64.9	3.4포인트증
장기실도입구성비(%)	49.8	44.7	5.1포인트감
(단 가: \$/B)	(13.91)	(15.68)	(1.77증)
현물도입구성비(%)	50.2	55.3	5.1포인트증
(단 가: \$/B)	(13.82)	(15.93)	(2.11증)

현물원유도입가격은 장기도입가격보다 0.25\$/B고가인데, 이는 국내수요구조추세에 대응하여 가격이 상대적

으로 비싼 東南亞지역의 저유황·경질원유를 많이 도입
했기 때문이다.

현물원유도입비율은 '88년도의 50.2%에서 '89년도에는
55.3%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현물시장의 비교적 안정세

〈表10-1〉 형태별원유도입물량 (단위:千배럴, ()%, < >千B/D)

	內 需(도입형태별)			임가공	비 축	計
	장 기	현 물	小 計			
1980	177,221 (96.9)	5,640 (3.1)	182,861 (100)	-	-	182,861 <500>
1981	175,612 (97.4)	4,704 (2.6)	180,316 (100)	-	2,500	182,816 <501>
1982	155,232 (94.9)	8,295 (5.1)	163,527 (100)	10,081	4,761	178,369 <489>
1983	124,099 (76.7)	37,782 (23.3)	161,882 (100)	25,800	5,207	192,888 <528>
1984	128,049 (74.5)	43,730 (25.5)	171,779 (100)	27,902	-	199,681 <546>
1985	113,217 (69.1)	50,715 (30.9)	163,932 (100)	34,381	-	198,313 <543>
1986	117,905 (66.1)	60,443 (33.9)	178,348 (100)	41,924	9,791	230,063 <630>
1987	94,862 (55.0)	77,762 (45.0)	172,624 (100)	35,718	7,821	216,163 <592>
1988	102,599 (49.8)	103,449 (50.2)	206,048 (100)	47,091	7,940	261,079 <713>
1989	122,839 (44.7)	151,807 (55.3)	274,645 (100)	21,765	-	296,410 <812>

〈表10-2〉 형태별원유도입금액

(단위:百萬달러, \$/B(FOB))

	總 導 入		내 수		임 가 공		비 축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1980	5,431	29.70	5,431	29.70	-	-	-	-
1981	6,237	34.12	6,158	34.16	-	-	79	31.46
1982	5,854	32.82	5,374	32.87	328	32.52	152	31.92
1983	5,550	28.77	4,676	28.89	726	28.15	148	28.37
1984	5,587	27.98	4,819	28.05	768	27.52	-	-
1985	5,289	26.67	4,376	26.69	913	26.56	-	-

	總 導 入		내 수		임 가 공		비 축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1986	3,259	14.17	2,589	14.52	570	13.60	100	10.58
1987	3,659	16.93	2,932	16.98	598	16.24	130	16.58
1988	3,626	13.89	2,857	13.86	657	13.95	113	14.17
1989	4,686	15.81	4,343	15.81	342	15.72	-	-

〈表11-1〉 정유사별 장기계약체결 비중

(단위: 천B/D)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1989내 수 소 비	298.8	281.0	67.2	45.6	59.9	752.5
1989달 장 기 계 약 체 결 (내수대비구성비: %)	175.6 (58.8)	193.8 (69.0)	39.0 (58.0)	70.0 (153.5)	10.0 (16.7)	488.4 (64.9)
1990증량신규계약추진예정 計	14.0 189.6	- 193.8	11.0 50.0	- 70.0	35.0 45.0	60.0 548.4
('90내수대비구성비: %)	(63.5)	(69.0)	(74.4)	(153.5)	(58.4)	(72.9)

〈表11-2〉 社別·形態別 原油導入

(단위: 천배럴)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油 公	내 수	75,953	75,566	74,252	87,181	79,125	100,387	109,056
	현 물 (%)	12,075 (15.9)	6,057 (8.0)	19,002 (25.6)	13,502 (15.5)	23,178 (29.3)	44,427 (44.3)	52,583 (48.2)
湖 油	내 수	54,495	61,618	57,239	58,965	63,922	65,943	102,549
	현 물 (%)	13,240 (24.3)	29,411 (47.7)	22,825 (39.9)	29,681 (50.3)	35,811 (56.0)	29,082 (44.1)	57,771 (56.3)
京 仁	내 수	13,620	14,485	15,618	15,859	12,928	20,847	24,539
	현 물 (%)	8,516 (62.5)	6,235 (43.0)	1,834 (11.7)	3,991 (25.2)	4,357 (33.1)	12,011 (57.6)	12,828 (52.3)
雙 龍	내 수	13,874	17,444	13,704	13,586	13,658	13,847	16,650
	현 물 (%)	- (0)	2,027 (11.6)	6,955 (50.8)	12,509 (92.7)	12,598 (92.2)	12,904 (93.2)	11,974 (71.9)
極 東	내 수	3,020	2,669	3,117	2,758	2,990	5,025	21,874
	현 물 (%)	324 (10.7)	- (0)	100 (3.2)	760 (27.6)	1,816 (60.7)	5,025 (100)	16,910 (77.3)
計	내 수	161,882	171,779	163,932	178,348	172,624	206,048	274,646
	현 물	37,782	43,730	50,715	60,443	77,762	103,449	151,807
	장 기	124,099	128,049	113,217	117,905	94,862	102,599	122,839
	현물/장기 (%)	23.3 / 76.7	25.5 / 74.5	30.9 / 69.1	33.9 / 66.1	45.0 / 55.0	50.2 / 49.8	55.3 / 44.7

지속 및 極東精油의 정제시설확장으로 인한 현물원유도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表 10-1 및 10-2 참조〉

한편, '89년은 장기계약체결물량은 488.4천B/D로서 그 비중은 내수소요원유의 64.9%인바, '89년 5월부터 현물원유도입계약에 대한 신고제고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기안정공급목표선인 60%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원유의 안정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장기계약체결구성비(64.9%)에 비해 실도입구성비(44.7%)가 낮은 이유는 京仁, 雙龍, 極東 등이 주로 '89하반기에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중 현물원유도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89달 精油社別 장기계약체결비중은 〈表 11-1〉와 같고, 연도별 실도입물량의 구성비는 〈表 11-2〉와 같다.

(3) 지역별 원유도입측면

中東지역에서의 도입비중은 전년동기보다 8.5%포인트

증가하여 72.7를 차지하고 있어 中東의존도의 적정목표수준을 상회하나, 이는 이란·이라크전쟁의 종전으로 원유수송상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美 洲, 아프리카등 다변화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의 유인감소로 풀이된다. 그러나 OPEC 의존도는 오만, 北예멘, 中國등에서의 원유도입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다.〈表 12-1 참조〉

산유국별 도입량 우선순위를 보면 1위 오만(22.4%), 2위 아랍에미리트(16.3%), 3위 이란(13.0%)으로써 3

〈表12-1〉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1988	1989	증 감
中 東 (%)	64.2	72.7	8.5포인트증
東南아시아 (%)	19.9	21.0	1.1포인트증
美 洲 (%)	9.1	1.3	7.8포인트감
아 프 리 카 (%)	6.8	5.0	1.8포인트감
OPEC의존도 (%)	55.2	53.1	2.1포인트감

〈表12-2〉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千배럴, () 構成比%)

	中 東	東 南 亞	美 洲	아 프 리 카	計
1980	180,745 (98.8)	782 (0.5)	1,334 (0.7)	-	182,861 (100)
1981	165,857 (90.7)	5,143 (2.8)	10,379 (5.7)	1,467 (0.8)	182,816 (100)
1982	135,526 (76.0)	21,942 (12.3)	14,486 (8.1)	6,415 (3.6)	178,369 (100)
1983	142,882 (74.0)	26,301 (13.6)	11,652 (6.0)	12,053 (6.2)	192,888 (100)
1984	132,767 (66.5)	38,506 (19.2)	16,180 (8.2)	12,228 (6.1)	199,681 (100)
1985	113,016 (57.0)	47,993 (24.2)	25,394 (12.8)	11,911 (6.0)	198,313 (100)
1986	139,297 (60.6)	51,164 (22.2)	25,602 (11.1)	14,000 (6.1)	230,063 (100)
1987	138,659 (64.1)	51,265 (23.7)	11,098 (5.1)	15,141 (7.0)	216,163 (100)
1988	167,539 (64.2)	51,918 (19.9)	23,845 (9.1)	17,777 (6.8)	261,079 (100)
1989	215,532 (72.7)	62,103 (21.0)	3,826 (1.3)	14,949 (5.0)	296,410 (100)

개국에서의 도입량이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4위국 말레이시아(9.1%) 순이다.

그러나, 中東지역중 특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도입비중은 5.1%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0천B/D 이하의 구매자에 대하여는 GSP를 고수함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고가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나, 향후 국내수요 증가와 함께 증질유분해시설, 탈황시설등 고도화시설의 설치완료 시에는 사우디에서의 원유도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은 中國産원유의 도입증가와 함께 국내수요구조의 저유황, 경질화추세를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美洲,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도입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콰도르 원유가 美國産 ANS원유에 연동되어 고가이고, 아프리카지역의 알제리원유 등은 北海産 브렌트원유에 연동되어 강세일뿐 아니라, 원거리로 인한 장기간수송 및 수송비부담으

로 정유사가 이지역에서의 도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 12-2 참조>

(4) 原油도입선 다변화측면

장기계약도입선은 전년동기보다 1개국 증가하고 전체 도입국수는 3개국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89년중 아프리카지역의 앙골라, 콩고 및 中南美的 멕시코원유도입이 중단된 때문이다.

특히, '89년 4월부터 공산권과는 처음으로 중국과 장기도입계약(13천B/D)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현물원유도입과 함께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지리적인 여건상 中國産원유의 도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13-1 및 13-2 참조>

한편 도입선다변화를 위한 추가운송비지원은 4.6억원에 불과한 바, 그 이유는 다변화대상지역의 산유국인 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등이 수송거리가 멀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도입시 추가운송비

<表13-1> 원유도입선 다변화 추이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장기계약국수	5	9	9	10	11	11	12	12	11	12
전체도입국수	9	12	13	14	17	18	21	20	22	20

<表13-2> 산유국별 원유도입 추이

(단위: 천배럴, \$/B(FOB), %)

	1987			1988			1989		
	물 량	단 가	구성비	물 량	단 가	구성비	물 량	단 가	구성비
〈中 東〉									
사우디아라비아	31,564	16.51	14.6	7,841	13.72	3.0	14,974	15.33	5.1
쿠 웨 이 트	9,693	16.77	4.5	9,465	13.47	3.6	15,096	14.83	5.1
이 란	31,733	16.38	14.6	35,763	13.63	13.7	38,599	15.15	13.0
오 만	29,229	17.11	13.5	51,300	13.79	19.6	66,490	15.98	22.4
이 라 크	5,436	17.13	2.5	12,458	12.92	4.8	5,750	13.78	1.9
아랍에미리트	25,255	17.20	11.7	40,566	13.78	15.5	48,170	15.46	16.3
北 예 멘	-	-	-	8,873	14.88	3.4	8,458	16.90	2.9
카 타 르	2,468	17.66	1.1	1,276	14.91	0.5	3,470	16.54	1.2
中 立 지 대	3,280	14.38	1.5	-	-	-	14,526	14.97	4.9
〈東 南 亞〉									
말 레 이 시 아	20,611	17.72	9.5	22,623	14.97	8.7	26,974	17.75	9.1

	1987			1988			1989		
	물 량	단 가	구성비	물 량	단 가	구성비	물 량	단 가	구성비
인도네시아	18,014	17.15	8.3	12,680	15.09	4.9	12,362	16.90	4.2
브루나이	10,387	18.12	4.8	11,476	15.15	4.4	12,786	17.96	4.3
濠洲	2,253	17.19	1.0	1,695	15.05	0.6	1,881	18.09	0.6
中國	-	-	-	3,444	11.42	1.3	8,100	14.09	2.7
〈美洲〉									
美國	561	17.61	0.3	-	-	-			
에콰도르	7,089	16.28	3.3	18,771	13.12	7.2	2,996	13.77	1.0
멕시코	2,991	15.64	1.4	4,954	13.40	1.9	-	-	-
캐나다	457	10.50	0.2	120	10.30	0.05	830	12.94	0.3
〈아프리카〉									
콩고	-	-	-	1,437	13.65	0.6			
리비아	5,116	18.07	2.4	-	-	-			
알제리	5,427	17.07	2.5	3,709	16.19	1.4	4,759	15.28	1.6
이집트	3,753	15.13	1.7	9,656	12.76	3.7	6,199	13.50	2.1
가봉	-	-	-	1,644	12.58	0.6	998	14.81	3.4
카메룬	845	17.33	0.4	630	13.59	0.2	2,992	15.68	1.0
앙골라	-	-	-	700	13.98	0.3			
計	216,163	16.93	100	261,079	13.89	100	296,410	15.81	100

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이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表14-1〉 저유황·경질원유의 도입비중

(5) 수요구조의 질적변화추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石油化學工業의 신장, 차량증가

	1988	1989	증 감
저유황원유(%)	60.0	57.2	2.8포인트감
경질원유(%)	68.1	67.8	0.3포인트감

〈表14-2〉 소비구조(油質S成分原油導入)추이

(단위: 천배럴)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總 導 入 量	182,861	182,816	178,369	192,888	199,681	198,313	230,063	216,163	261,079	296,410	
油質	輕質油	30,583	43,032	47,844	67,624	101,190	99,289	130,050	132,858	177,828	200,949
	(%)	16.7	23.5	26.8	35.1	50.7	50.1	56.5	61.5	68.1	67.8
重質油	152,278	139,784	130,525	125,264	98,491	99,024	100,013	83,805	83,201	95,461	
	(%)	83.3	76.5	73.2	64.9	49.3	49.9	43.5	38.5	31.9	32.2
硫黃	低硫黃	1,444	12,358	36,933	62,017	85,663	109,505	126,258	116,971	156,678	169,675
	(%)	0.8	6.8	20.7	32.2	42.9	55.2	54.9	54.1	60.0	57.2
高硫黃	181,417	170,458	141,436	130,868	114,018	88,808	103,805	99,192	104,501	126,735	
	(%)	99.2	93.2	79.3	67.8	57.1	44.8	45.1	45.9	40.0	42.8

〈참고〉 * API°

* 硫黃分

* '89. API° : 35.35

34↑ : 輕質油

1.0↓ : 低硫黃

Sulfur : 1.22wt%

30~33 : 中質油

1.0↑ : 高硫黃

29↓ : 重質油

및 연료소비증가로 대기오염등 환경공해방지를 위한 石油製品 수요구조가 고급화되어가고 있어 경질·저유황 원유의 도입이 지속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表 14-1 참조>

다만, '89년도에 '88년도보다 절대도입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황·경질원유의 도입비중이 감소한 것은 '88년중 서울올림픽경기대회 개최시기를 전후하여 상당기간동안 연료소비에 따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유향합량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 및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88년도에 소비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表 14-2 참조>

2. '90 原油수급계획

'90년도 원유도입계획물량은 전년대비 4.4%증가한 309,455천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내수도입계획은 전년대비 3.4%증가한 283,920천배럴로서 각 정유사별 원유도입 및 처리계획은 <表-15>와 같다.

<表-15> '90년 원유수급계획

(단위: 천배럴)

	初在庫	도 입				처 리			未在庫
		내 수	임가공	비 축	計	내 수	임가공	計	
油 公	5,531	111,370			111,370	111,063		111,063	5,838
湖 油	3,500	101,762	12,785		114,547	101,762	12,785	114,547	3,500
京 仁	1,580	24,640			24,640	24,500		24,500	1,720
雙 龍	540	20,568	10,950		31,518	20,508	10,950	31,518	540
極 東	2,800	25,580			25,580	26,640		26,640	1,740
油開公	36,302			1,800	1,800				38,102
計	44,583	283,920	23,735	1,800	309,455	289,533	23,735	308,268	51,440

IV. 원유도입정책방향

국내 석유소비는 '86년 이후 '89년까지 평균 12.6%씩 증가하여 계속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부문이 석유소비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송 및 가정등 비생산분야에서 석유소비를 주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근래에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물량증가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고급화되는 즉, 경질화, 저유황화, 가스화등 구조변화추세와 더불어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료소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국제석유시황도 제2차 석유위기이후 세계석유소비의 지속적증가로 인한 점진적인 OPEC산유국의 공급점유율

증대에 따라서 최근에는 원유의 장기안정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開放化, 자율화를 향한 욕구가 석유산업분야에도 일고 있는데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 놓은 石油안정공급기반을 계속 다져가면서 석유산업계의 주장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산업화, 도시화, 자동차의 급증 등에 따른 소비구조의 질적변화와 대기오염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소요에너지자원의 전량을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나라 석유공급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석유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정책이 석유정책이 최대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당면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原油導入先다변화, 장기원유구입계약의 확대추진, 석유추가비축,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이라크등 주요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 확대, 국내의 유전개발의 적극적인 개발등 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과 아울러 LNG 및 원자력의 보급을 확충하여 그간 다소 이완되었던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다시 범국가적차원에서 운동으로 승화시켜 소비절약이 곧 생산이라는 인식으로 가정과 공장등 모든분야에 걸쳐 에너지절약의식의 생활화를 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원유도입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안정공급기반강화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原油의 안정확보 및 低價도입체제 구축

원유의 국내생산이 전혀 없는 우리실정에서는 원유의 안정확보 및 低價도입이 최대의 과제이므로 이 양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原油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85년 5월 1일부터 원유의 구입계약중 내수소요원유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현물원유도입계약을 종전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고시함과 동시에 나머지 60% 수준에 대하여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토록 유도함으로써 '89년 12월말 현재 62.8%의 계약실적을 달성, 장기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였는 바, 앞으로도 정유각사는 이러한 장기안정공급선의 유지·확대를 통해 도입선다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自力생산능력 제고

국내 소요원유의 확보방법은 현재 산유국과의 장기공급계약체결 및 현물시장에서의 도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좋은 확보방법은 국내 대륙봉의 적극적인 개발과 해외유전개발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주에너지인 석유의 자력공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국내외油田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해외유전개발의 성과로 북에멘에서 개발된 자주개발원유의 국내사용을 위해 油公은 三煥企業, 현대종합상사, 油開公 등 한국내 콘소시업참여회사들과 약 20천B/D의 지분할당물량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88년도에 처음으로 24천B/D, '89년도에 23천B/D

을 도입하였는데, 앞으로도 주변대륙봉 및 해외자원부존 유망지역의 유전개발에 계속 참여하여 소요원유의 장기安定的 확보기반과 자력생산공급능력을 제고함으로써 2001년까지 자주공급률 20%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개방화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국내 정유업체의 해외유전 및 해외정유산업참여를 장려하고 자원 및 기술보유국의 관련산업진출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石油의 추가비축

제2차 석유위기이후 석유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사업을 추진한 결과 '89년말 현재 약 56일분의 비축유를 비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부족 사태등 석유위기는 물론 국내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비축능력의 확충을 위해 추가비축 및 신규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석유수요의 양적·질적 증가전망과 불확실한 국제석유정세등을 감안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비축수준을 재검토했던 다음 우선 1단계로 '92년까지 석유제품을 비축하여 수급조절용으로 추가확보하고, 2단계로는 '96년까지 原油 및 石油製品을 추가로 비축하여 국내수요의 60일분을 정부비축유로 확보토록 할 것이다.

한편, 정부비축원유의 신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필요시 실수요자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거나 아니면 판매함으로써 국내원유의 低價공급 및 단기적인 수급조절기능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저장시설유지·보수와 장기보관에 따른 비축유의 품질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점검은 물론 순환저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原油導入先 多변화의 지속 추진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80년대 초반 국내소요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등 中東지역에서만 도입함에 따라 원유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의 재발방지를 위해 석유 파동시 산유국의 일방적 공급감축에 대비하고 또한 對國民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역에 원유도입선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도입선 다변화는 산유국의 石油부존량 및 잠재력을 고려하여 그 정도에 따라 각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中東지역의 원유매장량의 세계 총확인매장량의 62%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점과 이란·이라크전쟁의 종전에 따라 수송상의 위험이 해소된 점을 감안하여 60~70% 수준의 中東의존도를 유지하면서 국제석유수급 시장의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美·아프리카지역의 산유국과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입선의 지역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향후 OPEC산유국의 石油市場주도권 장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OPEC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多變化 지원제도는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大産油國으로의 다변화를 촉진시키되,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國際石油市況의 변화에 따라 石油事業基金 지원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원유거래에 있어 시장경쟁원리가 확산될 경우에는 지원폭을 축소하여 민간상사의 교섭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고정가격등 원유거래가격이 카르텔화하여 경직될 경우에는 그 지원폭을 확대하여 원유도입상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국제활동강화

제2차 석유위기 당시 원유확보가 어려웠던 경험을 거울삼아 국제석유시황이 안정된 시기에 정부차원에서의 산유국인사 초청 및 순방등을 통하여 石油外交를 강화하고,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물론 호혜적인 우호협력 차원에서 다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유사 및 민간종합상사 등도 自社의 교섭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주거래 산유국

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토록 평소에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제3의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안정공급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확립·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자금공급을 擴大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진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원유공급방침은 민간주도의 자율적 책임에 의한 상업베이스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국간 外交, 건설진출, 교역관계 등으로 인하여 도입이 불가피한 이라크, 멕시코, 리비아원유등 소위 정책원유도입국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원유공급박박시에 대비하여 쌍방간 자원협력관계를 지속시켜 최소한의 원유도입은 계속 유지되도록 모든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양질원유의 도입증대

경제규모의 확대에 의한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되는 에너지소비를 인하여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보전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저유황화·경질화 등 국내수요구조의 고급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良質의 원유도입이 고급화시설 설치완료 이전까지는 계속 확대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석유소비구조추세의 질적 변화요구와 더불어 세계원유매장량 분포구조상으로 볼때 향후 원유의 重質化추세가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LNG 및 LPG의 확대공급과 병행하여 중질유 分解施設 및 脱黃施設을 조속히 설치·가동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유황·경질유제품이 생산·공급되어 현재 국내 石油製品수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소요물량의 안정공급을 기함은 물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